

좋은 개념의 행위자-상관성*

- 책임전가적 설명의 관점에서 -

성창원**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좋음, 좋은의 행위자-상관성, 숙고적 모델, 비숙고적 모델, 좋음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 규범판단

요약문

이유 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좋음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의 기저에 놓여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평가적인 영역에 대한 규범적인 영역의 우선성이다. 윌러스는 이러한 책임전가적 설명을 숙고적 모델의 관점에서 발전시킨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행위자가 존재할 때에만 그것은 좋은의 속성을 지니게 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는 행위자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고적 모델과 구분된다.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행위자-중립적 좋음에 대한 행위자-상관적 좋은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수용하기에, 그들은 그 역을 주장하는 무어주의자들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점은 현대의 무어주의자인 리건의 최근 논의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숙고적 모델은 좋음을 행위자-상관적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7575). 본 논문의 초고는 2015년 8월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감성의 인간학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하계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논평을 해주신 강준호 선생님과 완성된 논문에 유익한 논의를 제공해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지낸다. 첫째, 숙고적 모델이 비숙고적 모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입장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윌러스는 대상의 상위속성보다 그 하위속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근거로 숙고적 모델의 장점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항상 참은 아니다. 둘째,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때 행위자가 형성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규범판단만이 그 대상으로 하여금 좋음의 상위속성을 가지게 해준다. 이 주장은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 사이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수용될 수 있는데, 숙고적 모델은 이러한 구분을 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1. 들어가기

본 논문의 목표는 이른바 좋음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the buck-passing account of good; 이하 “책임전가적 설명”으로 약함)의 관점에서 good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최근의 시도를 소개하고 그 한계와 전망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책임전가적 설명은 이유 근본주의(reasons fundamentalism)라는 특정한 메타윤리적 입장을 전제하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옳고 그름과 같은 의무론적(deontic) 개념이나 좋음과 나쁨과 같은 평가적(evaluative) 개념을 위시한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은 모두 이유의 관점으로 환원되어 설명되어야 한다.¹⁾ 그래서 이유 근본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가치에 대한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행위 하거나 느낄 이유가 있는 것에 관한 사실들로 이해될 수 있다.”²⁾ 따라서 책임전가적 설명의 기저에 놓여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평가적인 영역에 대한 규범적인 영역(the normative)-즉 이유에 관한 판단들로 이해되는 영역-의 우선성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하 이유 근본주의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관점을 편의상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로 부르자.

책임전가적 설명에 따르면 어떤 좋은 대상은 좋음이라는 상위속성

-
- 1) 책임전가적 설명의 대표적인 옹호로는 T. M.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2장 참조. 이유 근본주의와 관련해서는 성장원, 「좋은 것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철학연구』, 제92집, 철학연구회, 2011, 137쪽의 서술 및 드워킨, 파핏, 그리고 스캔런 등의 최근 작업들 참조.
 - 2) R. Jay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Dialectica* vol. 64, 2010, 503쪽.
 - 3) 관련된 서술로는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09쪽을 볼 것.

(higher-order properties)과 그 대상이 그 상위속성을 갖도록 해주는 하위 속성(lower-order properties), 즉 좋게 만들어 주는 속성(good-making properties)을 동시에 지닌다.⁴⁾ 예컨대 “이 휴양지는 좋다”는 판단에서 좋음의 상위속성은 그 휴양지의 “유쾌함”(pleasantness)이라는 하위속성에 의해 설명된다.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휴양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나 행위들을 지지하는 이유들은 상위속성이 아니라 바로 하위속성에서 제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음이라는 상위속성은 이유를 제공하는 힘을 결여하며, 이유를 제공하는 이른바 “규범적인 책임” the normative buck)은 구체적인 하위속성으로 전가된다.

윌러스는 이러한 책임전가적 설명을 그가 “숙고적 모델”로 부르는 관점에서 발전시키는데, 필자는 2장에서 그의 이러한 시도가 좋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간략히 말해, 숙고적 모델에 따르면 좋음은 주어진 행위자의 실질적인 판단과 독립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속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행위자-중립적”(agent-neutral) 좋음과 “행위자-상관적”(agent-relative) 좋음 중에서 어떤 것이 존재론적으로 더 우선적이냐는 논쟁과 관련해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3장에서는 행위자-중립적 좋음을 강력히 옹호하는 리건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숙고적 모델의 이론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식별해낸다. 필자의 고유한 논의가 전개되는 4장과 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숙고적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윌러스는 숙고적 모델을 “비숙고적 모델”에 대비시키는데, 전자를 취하는 그의 입장의 설득력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선성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을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필

4) 이 단락의 서술은 성장원, 「좋은 것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18쪽의 논의에 근거한 것임.

5) 이 예는 스캔런이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97쪽에서 제시한 것이며, 윌러스 또한 동일한 예에 대해 논한다.

자는 이러한 우선성에 관련된 윌러스의 논의가 충분치 못함을 보임으로써 숙고적 모델이 더 강력한 옹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겠다(4장). 5장에서는 숙고적 모델이 좋은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그 개념과 하위속성 간에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특정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반론은 숙고적 모델뿐만 아니라 책임전가적 설명 전반을 공격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판명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책임전가적 설명 및 숙고적 모델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의도에서 수행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왜냐하면 필자 자신은 책임전가적 설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에 대체로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책임전가자들”(the buck-passers)⁶⁾이 어떻게 좋은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넓게는 그들이 자신들의 설명 자체의 신빙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표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주제의 철학적 유의미성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도덕철학의 역사에서 행위자-중립적 좋음과 행위자-상관적 좋음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거나 그 둘 사이의 상대적 우선성을 밝히는 것은 보편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난제로 간주되어 왔다.⁷⁾ 예를 들어,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좋은을 분석불가능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행위자-상관적 좋음에 대한 행위자-중립적 좋은의 우선성을 주장한 무어의 경우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그의

6) “책임전가자들”은 학계의 관례대로 책임전가적 설명에 동의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7) “행위자-중립성”과 “행위자-상관성”은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불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Thomas Nagel, *The Possibility of Altru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에서의 용법을 비교할 것). 이러한 용법의 의미와 차이에 관한 유익한 논의로는 강준호, 「네이글의 행위자-상대성/행위자-중립성 구분에 대한 고찰」, 『철학』, 제114집, 한국철학회, 2013 참조.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행위자-상관적 좋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시도나 논변을 찾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된 작업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토대로 윤리학 전반에 구성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코스가아드의 입장에 따르면 좋음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실천이성의 구성적 절차의 산물이다.⁸⁾ 그런데 책임전가자들과 코스가아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이유들에 대해 가지는 입장이다.⁹⁾ 전자는 이유에 대해 실재론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후자는 이유 자체도 구성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규범성의 우선성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책임전가적 설명의 관점에서 good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숙고적 모델은 충분히 독립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하다.

8) 이와 관련된 그녀의 많은 작업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Christine M. Korsgaard, “The Relational Nature of Good” in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vol. 8, edited by Russ Shafer-Landau,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26쪽 참조.

9)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코스가아드 자신의 서술로는 Christine M. Korsgaard, “Realism and Constructivism in Twentieth-Century Moral Philosophy” in *The Constitution of Agency: Essays on Practical Reason and Mor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24쪽 참조.

2. 숙고적 모델과 비숙고적 모델

윌러스가 이해하는 책임전가적 설명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좋은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근거지우는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예비적 논의로서 책임전가적 설명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논쟁 하나를 잠시 살펴보자. 스캔론은 책임전가적 설명을 제시하면서 애초에는 이유를 제공하는 하위속성이 자연속성(natural properties)에 한정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위속성이 평가적 속성(evaluative properties) 또한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¹⁰⁾ 앞에서 논한 예를 다시 들면, 휴양지의 유쾌함이라는 속성은 순수한 자연속성일 수 없고, “평가의 구체적인 범주”¹¹⁾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책임전가적 설명의 체계에서 행위와 반응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속성들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의 속성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¹²⁾ 책임전가적 설명이 이렇게 두 종류의 속성을 모두 하위속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쟁점들 중에서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렇게 변형된 책임전가적 설명이 최소한 잠재적으로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평가적 영역을 규범성의 영역으로 환원시키려는 기획에 기반을 둔 책임전가적 설명이 결국에는 후자의 영역이 전자의 영역을 전제함을

10) 이 점은 책임전가적 설명에 관련된 많은 문헌들에서 인정된다. 성장원, 「좋은 것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22쪽 주12 및 같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R. Jay Wallace, “Scanlon’s Contractualism,” *Ethics* vol. 112, 2002, 448-449쪽 참조. 또한 Roger Crisp, “Goodness and Reasons: Accentuating the Negative,” *Mind* vol. 117, 2008, 258-259쪽을 볼 것. 크리스프는 이렇게 이해된 책임전가적 설명을 이른바 “수정된 책임전가적 설명”(the Revised Buck-Passing Account)으로 부른다. 이제 필자가 책임전가적 설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수정된 버전 또한 포함한다.

11) Wallace, “Scanlon’s Contractualism,” 448쪽 (Crisp, “Goodness and Reasons: Accentuating the Negative,” 259쪽에서 재인용).

12)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06쪽의 논의 참조.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윌러스의 논변이 책임전가적 설명의 관점에서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요점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가치에 대한 “예화논제”(the instantiation thesis)¹³⁾를 도입한다. 이 논제에 따르면 “구체적인 속성들[하위속성-필자]은 그것들이... 좋음이라는 일반적인 속성의 예화들인 한해서 하나의 실질적인 가치로 간주된다”.¹⁴⁾ 즉 하위속성은 그 자신으로 인해 그것이 속한 대상이 좋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될 때 실질적인 하나의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예에서 휴양지의 유쾌함이라는 하위속성이 실질적인 가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그 속성이 평가적 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휴양지는 유쾌함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좋은 곳이 되어야한다.¹⁵⁾

따라서 예화논제의 요점은 하위속성이 어떻게 그것이 속한 대상이 좋은 상위속성을 가지게 해주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윌러스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우선 비숙고적 모델(the non-deliberative model)¹⁶⁾에 따르면 주어진 대상이 좋은 상위속성을 보유하는지를 이해함에 있어 그 대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행위자 자신의 판단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¹⁷⁾ 즉 어떤 대상의 하위속성이 좋음이라는 상위속성의 예화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자의 숙고적 반성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보기에 비숙고적 모델은, 좋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

13)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08쪽.

14)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07쪽.

15)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08쪽 주5 참조.

16) 윌러스의 원래 표현은 “숙고-독립적”(deliberation-independent) 모델임.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2쪽.

17)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0쪽 이하 참조.

나 조건들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하위속성이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한 그것은 좋은 상위속성을 예화하게 된다는 견해와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¹⁸⁾ 그리고 해당 조건들이 행위자의 판단이나 관점에 의존적이지 않다면 방금 언급한 견해와 결합된 비속고적 모델은 좋은 본질적으로 모두 행위자-중립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의미한다. 이러한 비속고적 모델이 책임평가자들이 수용하는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와 충돌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유들로 구성된 규범성의 영역은 다른 아닌 행위자가 주어진 대상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런데 월러스는 비속고적 모델과 구별되는 “숙고적 모델”(the deliberative model)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 대한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어떤 주어진 후보 속성[실질적인 가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하위속성-필자]이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가치인지를 (즉 [그것이] 좋은 의 예화나 양상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성이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규범적인 중요성(the normative significance)에 관한 숙고적인 반성이다.²⁰⁾

18) 이러한 입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서술로는 성창원, 「좋은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28쪽 참조.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친화성은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속고적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좋은에 대한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러스가 언급하는 비속고적 모델의 옹호자인 래즈도 좋은에 대한 일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표적으로 Joseph Raz, “On the Moral Point of View” in *Engaging Reason: On the Theory of Value and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7-272쪽 참조). 래즈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로는 Changwon Sung, “Morality and Other Values: A Contractualist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0, 41-50쪽을 볼 것.

19) 따라서 월러스가 비속고적 모델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20)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3쪽.

다소 어렵게 읽히는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주지하다시피 예화논제에 따르면 “이 휴양지는 유쾌하다”고 할 때 그 휴양지는 유쾌함이라는 하위속성 때문에 바로 좋은 곳이 된다. 여기서 이 “때문에”의 철학적 의미를 비속고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윌러스는 그 의미를, 하위속성은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행위자에 대해 **속고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좋음이라는 상위속성의 예화가 된다는 주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²¹⁾ 여기서 필자는 행위자에 대한 속고적인 중요성이라는 생각을 행위자 자신이 주어진 하위속성에 어떻게 반응할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동일한 예에서 휴양지가 유쾌함이라는 속성을 지닌다면 아마도 나는 “그곳에 갈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나 “그곳을 친구에 추천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²²⁾ 위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행위자에 대한 하위속성들의 규범적인 중요성이란 생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예화논제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속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주어진 하위속성이 행위자에게 규범적으로 중요할 때에만 그것이 속한 대상이 좋음의 상위속성을 지니게 됨을 그리고 바로 이때에만 그 하위속성이 실질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즉 평가적 속성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논한 속고적 모델은 책임전가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인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에 여전히 충실한 것이기에, 혹자는 우리가 왜 굳이 그 논제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유 근본주의

21)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3쪽 및 516쪽.

22)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모두 주어진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pro-attitudes*)와 관련된다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95쪽의 논의를 비교할 것). 그러나 5장에서 주장하겠지만 필자는 이것이 속고적 모델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라는 메타윤리적 입장 자체의 설득력에 관한 것이기에 짧은 지면을 통해 필자가 만족스런 답을 제공할 수는 없다.

윌러스의 관심은 변형된 책임전가적 설명에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를 훼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놓여 있기에, 그의 숙고적 모델은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윌러스의 입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를 변형된 책임전가적 설명에서 평가적 속성이 하위속성으로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속성 또한 결국 숙고적 모델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약 유쾌함이 순수하게 자연속성이 아니라 평가적 요소 또한 지니고 있다면 이 요소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하위속성에 대한 행위자의 규범적 반성이 다시 요청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숙고적 모델은 그것이 일종의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다른 하위속성 또한 더 낮은 수준의 평가적 속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은 논외로 하고, 윌러스의 숙고적 모델은 스캔런이 원래 제시한 책임전가적 설명을 중요한 측면에서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에 주목하자. 스캔런은 대상의 하위속성을 자연속성에만 한정시키는 “실수”를 범했는데, 이제 그 모델은 평가적인 속성이 하위속성에 포함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자들의 입장을 명료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가 숙고적 모델을 논하려 했던 원래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이다: 숙고적 모델에 따르면 대상의 좋음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방식은 그 대상에 대한 행위자의 규범적인 판단이기에, 그 모델은 우리가 좋음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필자가 제기한 물음, 즉 윌러스가 이해하는 책임전가적 설

명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근거지우는 시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답이다.

3. 행위자-중립적 좋음과 행위자-상관적 좋음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어떤 대상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행위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할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믿기에 좋음을 행위자-중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서]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²³⁾는 주장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휴양지가 좋다면 이는 내가 그것에 대해 호의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나의 이러한 규범적 판단은 그 휴양지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나에게** 좋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휴양지가 (그 자체로서)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행위자에게 좋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이 행위자-중립적 좋음의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입장을 전개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자-중립적 좋음이 존재론적으로는 결국 행위자-상관적 좋음으로 환원되더라도 전자의 개념이 여전히 철학적 논의에서 편의상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해석적 논쟁은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분명한 점은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행위자-상관적 좋음의 존재론적 우선성에 친화적인데, 이는 사실 서두에서 언급한 무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현

23) Korsgaard, “The Relational Nature of Good,” 4쪽. 코스가아드의 이 주장은 현재의 맥락에 매우 적절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는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를 수용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대의 영향력 있는 무어주의자인 리건은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과 달리 행위자-상관적 좋음에 대한 회의주의를 일관되게 전개한다.²⁴⁾ 3장의 목표는 리건의 입장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토대로 숙고적 모델을 행위자-중립적 좋음과 행위-상관적 좋음의 상대적 우선성의 논쟁 안에서 고찰함으로써 가치론 일반의 영역에서 그 모델의 위치를 분명히 식별해내는 것이다.

행위자-상관적 좋음에 대한 리건의 회의주의는 그러한 좋음을 이해하는 다음의 특정한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X는 대상을 그리고 Y는 행위자를 지칭함)

(1) “X는 Y에게(for) 좋다” = “그 자체로서 좋은 X가 Y의 삶에서 일어난다”²⁵⁾

(1)은 기본적으로 X를 행위자-중립적 좋음으로 이해하고, “X는 Y에게 좋다”에서의 “--에게”의 철학적 의미를 “--의 삶에서 일어남”에 제한시키는 것이다. 리건은 여기서 드러나는 “--에게”의 의미를 주어진 행위자에 대한 “경험적 상대화(empirical relativization)”²⁶⁾로 부른다. 그가 왜 이를

24) Donald H. Regan, “How to be a Moorean,” *Ethics* vol. 113, 2003, 651-677쪽; “Why am I My Brother’s Keeper?” in *Reason and Value: Themes from the Moral Philosophy of Joseph Raz*, edited by Philip Pettit, Samuel Scheffler, Michael Smith, and R. Jay Wall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02-230쪽. 필자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번째의 글임. 리건을 무어주의자로 보는 것은 Sung, “Morality and Other Values,” 38쪽에서의 진단을 따른 것임.

25)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10쪽의 주장을 논의에 맞게 각색한 것임. 리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해방식은 무어에게서 빌려 온 것이다(G. E. Moore, *Principia Ethica*, edited by Thomas Bald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48-150쪽을 볼 것). 무어가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이해방식들로는 “X는 Y에게 좋다”를 “X는 Y가 도구적 이유로 인해 추구해야 할 것이다”로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10쪽 참조.

26)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12쪽. 강조는 리건의 것임.

“경험적” 상대화로 부르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그는 행위자-중립적인 좋음의 사실의 문제로서 어떤 실제적 행위자의 삶에서 발생함을 의도하는 듯하다. 어찌됐든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된 “--에게”의 철학적 의미는 사실 거의 공허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1)에 따르면 X가 Y에게 좋은지의 여부는 X가 (그 자체로서) 좋음의 속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상관적 좋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1)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리건은 여기서 행위자-상관적 좋음을 수용하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또한 제시하는데, 이 방안 따르면 그들은 “--에게”에 대한 경험적 상대화를 포기하고 “--에게”에 대한 소위 “규범성의 상대화”(the relativization of the normativity)²⁷⁾를 받아들여야 한다. 리건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X가 Y에게 규범적으로 상대화된다는 주장은 X가 Y에게만 이유를 제공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2)가 가능하다:

(2) “X는 Y에게 좋다” = “X가 Y에게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할) 이유를 제공한다”

리건이 이 지점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행위자-상관적 좋음의 지지자들이 (2)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이 중국에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철수에게만 좋은 대상 Z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철수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할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타인인 영희는 어떠한가?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 Z-즉 철수에게만 좋은 어떤 대상-에 반응할 이유가 영희에게 있는가?²⁸⁾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만약 이 세

27)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12쪽.

28) 이와 관련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11-212쪽에서의 여러 언

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행위자-상관성만 지닌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생기는 일들”²⁹⁾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이러한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자-중립적 좋음이 요청된다는 것이 리건의 생각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그가 무어주의자임을 고려할 때) 이기주의에 대한 무어의 잘 알려진 논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³⁰⁾

여기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 행위자-상관적 좋음에 대한 리건의 회의주의적 논변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2장의 논의를 상기할 때, (2)가 숙고적 모델의 기본적인 입장과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숙고적 모델의 근간이 되는 행위자에 대한 하위속성의 규범적 중요성이 (2)의 관점에서 잘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논자가 제시한 (2)의 도출과정이 행위자-중립적 좋음과 행위자-상관적 좋음 사이의 상대적 (존재론적) 우선성에 관한 논쟁에 근거한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치론 일반에서의 숙고적 모델의 위치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 숙고적 모델과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

이제 논의의 성격을 바꾸어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숙고적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2장의 논의에서 필자는 숙고적 모델과 비숙고적 모델

급들을 참조할 것.

29) Regan, “Why am I My Brother’s Keeper?” 202쪽.

30) Moore, *Principia Ethica*, 150쪽의 논의를 참조.

31)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필요하다. X가 Y에게 좋다고 해서 X가 Y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X는 최소한 **잠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규범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잘 발전시킨다면 이는 리건의 논변에 대한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차이를 강조했을 뿐 숙고적 모델의 이론적 장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숙고적 모델의 장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그 모델의 관점에서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신빙성은 다소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장의 목표는 이 문제에 대한 윌러스의 논의를 분석하고 그것이 충분치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숙고적 모델의 설득력에 대한 윌러스의 논의는 완전한 형태의 논변이 아니기에, 그것을 정확히 가려내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는 그의 주장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생각들에 집중될 것이다.

숙고적 모델의 장점은 윌러스가 보기에 그것이 함축하는 강한 “인식적” 용이성에 기인한다. 이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은 “가치에 대한 인식론은 그것의 기저에 놓여 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³²⁾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좋음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그러한 좋음의 존재론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 자체에 대해 용이한 인식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의 생각인 듯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무어적인 좋음 개념-다른 구체적인 자연속성으로 분석될 수 없는 좋음-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무어적인 입장에 대한 철학자들의 전통적인 불만은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좋음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³³⁾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숙고적 모델이 어느 정도의 이론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책임전가적 설명과 결부된 숙고적 모델은 대상이 지니는 구체적인 하위속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 대상의 좋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길잡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³⁴⁾

32)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4쪽 그리고 512-513쪽에서의 언급들을 비교할 것.

33)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Sung, “Morality and Other Values,” 38쪽 참조.

그런데 우리가 대상의 상위속성보다 그 하위속성에 더 용이한 인식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참인가? 윌러스의 말을 다시 빌리면, 가치에 대한 인식론은 가치의 형이상학에 대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가? 방금 제시한 물음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이 좋음의 속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팅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접한 후 “이 컴퓨터는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때때로 하위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필요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것이 “부팅속도가 빠름”이라는 하위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것이 좋음의 상위속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우리가 대상의 상위속성보다 하위속성에 더 용이한 인식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반례는 될 수 없다.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이라는 논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다음의 예, 즉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하위속성을 지니는 대상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아마도 예술작품이나 고전음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흐의 『별을 헤이는 밤』은 좋다”는 판단이나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해당 대상들의 하위속성을 항상 명료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하위속성이 순수한 자연속성이 아닌 평가적 속성 또한 포함한다면 그러한 불명료성은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 예컨대,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고흐의 『별을 헤이는 밤』은 좋다”고 할 때 “색깔이 아름다움”이라는 하위속성은, “색깔이 검은색임”이라는 하위속성과는 달리, 순수하게 자연속성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하위속성이 항상 명료하게 이해되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

34) 또한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8쪽의 언급 등을 참조.

가? 이러한 생각은 바로 위의 단락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위속성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인 반면 뒤의 생각은 그러한 이해 가능성보다는 하위속성에 대한 불명료한 인식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이 결합될 때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이라는 논제의 타당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마련된다고 본다.

물론 윌러스는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을 언급하면서 무어의 해결되지 않은 질문 논증(the open question argument)이 주는 교훈에 호소한다. 어떤 대상이 특정한 자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언제나 좋은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그리고 윌러스는 지적하길, 숙고적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기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모델 자체를 요청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그 대상이 왜 좋은지에 대한 답은 그것의 특정한 (자연)속성에 대해 우리가 호의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 논증이 숙고적 모델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필자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이 이미 참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목표는 좋음을 이해함에 있어 대상의 하위속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좋음을 설명함에 있어 하위속성이 요청된다는 점은 책임전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자가 예술작품 등의 예를 든 것도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을 단번에 논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논자의 포인트는 좀 더 제한적이다. 즉 윌러스가 생각하는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은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좀

35) 이 단락에서 논하는 윌러스의 견해는 Wallace,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515쪽을 볼 것. 또한 관련된 논의로는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96-97쪽 참조.

더 적극적인 옹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필자는 숙고적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이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제안하려 한다. 서론의 논의를 상기하면, 책임전가자들이 전제하는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는 반드시 평가적인 영역에 대한 규범성의 영역의 **인식적** 우선성을 내포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규범성의 영역 내에서도 이유들에 관련된 주장이나 판단들에 대한 인식적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고,³⁶⁾ 그 두 영역이 인식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더라도 책임전가적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 상 이 주장에 대한 포괄적인 옹호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³⁷⁾

36)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64-72쪽 및 Scanlon,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장 참조.

37) 필자는 다른 글에서 책임전가적 설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잉여논변과 다원주의로부터의 논변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장원, 「좋은 개념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21-124쪽 및 130-134쪽). 잉여논변에 따르면 하위속성이 이유-제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좋은 상위속성은 이유의 제공과 관련하여 잉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논변만으로는 책임전가적 설명의 가장 큰 특징인 좋은 이유-제공 불가능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좋은 이유-제공 불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은 다원주의로부터의 논변을 수용하는 것인데, 필자는 이 논변이 좋은 개념에 대해 개념적 회의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대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하위속성은 매우 다양하기에, 그러한 다양성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좋은 개념이라는 상위속성을 상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방금 말한 좋은 개념에 대한 개념적 회의주의의 핵심이다. 이 회의주의에 따르면 좋은 개념은 “그 자체로서 다른 속성들과 차별될만한 실질적 내용을 결여하며 따라서 그 한계(boundary)가 불분명한” 개념이고, 따라서 “좋은 개념이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설득력이 없다.” (인용은 모두 성장원, 「좋은 개념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34쪽) 그러나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접근이 더 용이하다고 해서 그 속성이 이유-제공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더 강화되지는 않으며, 상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접근에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좋은 개념에 대한 개념적 회의주의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책임전가적 설명 내에서 윌리스가 말하는 하위속성에 대한 인식적 용이성이라는 생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입장이다.

5. 좋음과 “공정적인” 규범판단

이제 4장의 논의와 달리 숙고적 모델이 그 자체로서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 모델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다른 종류의 반론, 사실 논자가 보기에 훨씬 더 심각한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반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숙고적 모델과 결합된 책임전가적 설명의 기본적인 주장, 즉 우리가 주어진 대상의 하위속성으로 인해 그 대상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이유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주장을 상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숙고적 모델 자체는 그러한 반응의 구체적인 양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모델은 행위자와 좋은 상위속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지만 행위자가 그 속성의 토대인 하위속성에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설명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내재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숙고적 모델은 이유들이 지지하는 태도나 행위의 양태의 다양성과 양립한다.³⁸⁾ 한편으로 우리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주어진 대상을 보호하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숙고적 모델은 이유들의 양태와는 중립적이기에 우리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지닌 규범판단,³⁹⁾ 예컨대 “그것을 파괴할 이유

38) 이와 관련하여 책임전가적 설명을 제시하면서 좋음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을 전제하는 스캔런의 논의를 참조할 것.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95-100쪽 참조 (또한 성창원, 「이유의 공지성과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 『철학연구』, 제117집, 대한철학회, 2011, 121쪽의 논의를 비교할 것). 스캔런의 다원주의는 좋음에 대한 배타적 목적론, 즉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치라는 주장을 배격한다. 물론 스캔런의 다원주의는 긍정적 규범판단 내에서의 그것이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다원주의는 긍정적 규범판단과 부정적 규범판단의 공존에서 드러나는 다원주의이다.

가 있다” 또는 “그것을 제거할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핵심은 주어진 대상의 하위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그 대상에 보이는 규범판단의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그 구분이 작위적일 수 있으나, 이는 현 맥락에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 대체로 그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필자의 논의에 충분하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숙고적 모델이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의 구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책임전가적 설명에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반론인 이른바 “잘못된 이유의 반론”(the Wrong Kind of Reasons Objection)이 내포하는 직관을 살펴보자.⁴⁰⁾ 이 반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좋은 속성을 결여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규범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악마가 위협할 경우,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내가 그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규범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상위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¹⁾ 따라서 여기서 그 음식과 관련해 가지게 되는 나의 이유는 적합한(right) 이유가 아니라 잘못된(wrong) 이유이다.

39) 이하 “규범판단”은 모두 “---을 할 이유가 있다”와 같은 형태를 지니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의미한다.

40) 이 반론에 대해서는 성장원, 「좋은 것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137쪽 주34 및 같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Wlodek Rabinowicz and Toni Rønnow-asmussen, “The Strike of the Demon: On Fitting Pro-Attitudes and Value,” *Ethics* vol. 114, 2004 참조.

41) 이는 잘못된 이유의 반론에 대한 매우 표준적인 서술이다. 특히 Jonas Olson, “Buck-Passing and the Wrong Kind of Reason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4, 2004, 296쪽 참조.

가치론 일반을 다루는 맥락은 아니지만 네이글의 고전적인 논의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의 반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는 의무론이 공리주의(또는 결과주의 일반)로부터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은 전자가 후자와 달리 이른바 의무론의 이유(the reasons of deontology), 즉 무고한 사람에게 일부러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⁴²⁾ 그는 이를 악(evil)에 대한 일종의 개념적 주장을 통해 정당화한다.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해치는 행위는 악을 지향하는 행위인데, 어떤 것이 악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제거되어야 함을 함축한다는 것이다.⁴³⁾ 즉 악의 “본질적인 규범적 힘”⁴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며, 바로 이것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해치지 말아야 할 의무론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악을 지향하는 행위를 해야 할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잘못된 종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글의 이러한 논의는 잘못된 이유의 반론이 우리에게 주는 직관이 규범윤리학적 논의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잘못된 이유의 반론과 관련된 문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규범판단이 나쁨이라는 (즉 좋음이 아닌) 상위속성과 충돌하는 경우들을 언급하지만, 필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부정적인 규범판단과 좋음이라는 상위속성이 충돌하는 경우 또한 흥미로운 문젯거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을 파괴할 이유가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규범판단을 내리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잘못된 이유의 반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상기한다면 그러한 언명을 진지하게

42) 이러한 생각은 Nagel, “War and Massacre” in *Mortal Ques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고, Nagel, *The View From Nowhe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9장에서 더욱 정치하게 논의된다.

43) 자세한 논의로는 Nagel, *The View From Nowhere*, 182쪽 이하 참조.

44) Nagel, *The View From Nowhere*, 182쪽.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반직관적이다; 어떤 것이 좋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파괴할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위협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어떤 좋은 대상과 그것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태도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좋은 상위속성을 지닌다면 이는 오직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규범판단 때문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떤 대상이 단 하나의 규범판단만을 산출하고 이 판단이 긍정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⁴⁵⁾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속성을 지닐 수 있기에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 규범판단과 긍정적 규범판단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규범판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규범판단이 좋음이라는 상위속성을 실현시켜준다. 바로 이것이 위에서 말한 좋음과 규범판단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모종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하향적이 아닌 상향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필자는 좋음에 대한 일반 이론이 존재하고 바로 이 이론 하에서 부정적인 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상향적인 의미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인 규범판단을 지니는 경우에만 그것이 좋은 상위속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향적 해석만이 규범성의 우선성 논제와 상충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본고의 논의 상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필자가 제안한 좋은 상위속성과 긍정적인 규범판단 사이의 관계는 바로 속고적 모

45) 강준호 선생님의 논평이 이러한 점을 명료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델을 지지하는 책임전가자들 스스로가 수용해야 할 것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잘못된 이유의 반론이 주는 교훈은 책임전가자들이 긍정적인 규범판단으로 인한 좋음의 상위속성의 실현을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적 모델이 좋음에 대한 행위자-상관적 정당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옹호자들은 그 반론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이유가 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윌러스는 이 반론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듯 하기에 이 지점에서 필자는 그와 입장을 달리한다.

그러나 필자는 잘못된 이유의 반론이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숙고적 모델의 한계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이유의 반론은 어떤 것이 “적합한” 이유인지 (긍정적 규범판단과 좋음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이유인지 (부정적 규범판단과 좋음의 관계)의 여부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로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 사이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참일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오직 긍정적인 규범판단만이 좋음의 상위속성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을 그들의 체계 내에서 구분해내야 할 골칫거리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윌러스의 숙고적 모델에 대한 그리고 그 관점에서 good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필자의 문제제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즉 비숙고적 모델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이 반론에 응답할 숙제를 지니게 된다. 그들이 비숙고적 모델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필자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답은 비숙고적 모델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2장의 논의를 상기하면, 비숙고적 모

텔에서는 대상의 하위속성은 그것이 좋음에 대한 (행위자-중립적인) 일반 이론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에만 좋은 상위속성을 예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예화된 하위속성이 행위자에게 그 대상에 반응할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속성은 이미 좋음을 예화한 것이기에 개념적으로 부정적인 규범판단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숙고적 모델의 기본적인 입장에 배치됨은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윌러스를 위시한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한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제안한 긍정적 규범판단과 부정적 규범판단의 구분 문제는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이론에는 실제로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정적인 규범판단만이 좋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직관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진지한 가능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없애버릴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것은 상당히 반직관적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윌러스 자신도 이 직관과 유사한 생각을 다른 글에서 제시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좋은 대상(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가치 전반)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는 그 대상이 실현되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지 않는 데에 있다.⁴⁶⁾ 이런 태도는 어떤 좋은 대상을 일부러 만들어 내거나 창조한다는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함축을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윌러스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필자의 문제제기에 동의할 것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46) Wallace, "The Publicity of Reasons," *Philosophical Perspectives* 23, *Ethics*, 2009, 특히 479-489쪽 참조. 그의 입장에 대한 분석으로는 성장원, 「이유의 공정성과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 117-122쪽 참조.

잘못된 이유의 반론을 통해 강조된 직관이 보편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좋음과 긍정적인 규범판단의 관계에 대한 직관이 단순히 좋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좋음에 대한 상당한 (전이론적인) 철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필자도 그 관계를 “모종의 관계”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어떻게든 그런 관계를 인정한다면 필자가 제안한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의 구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숙고적 모델의 지지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6. 나가는 말

본고의 논의를 통해 책임전가적 설명의 입장에서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근거지우려는 시도가 최소한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책임전가적 설명과 행위자-상관적 좋음의 연결고리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규범판단과 부정적인 규범판단 사이의 구별 문제는 최소한 숙고적인 모델 아래에서는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행위자의 실질적인 판단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좋음에 대한 특정한 개념화나 이론에 호소하지 않고 이러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숙고적 모델은 (비숙고적 모델에 환원되지 않으면서) 좋음을 행위자-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책임전가자들이 이와 관련 어떤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 강준호, 「네이글의 행위자-상대성/행위자-중립성 구분에 대한 고찰」, 『철학』, 제114집, 한국철학회, 2013: 141-163.
- 성장원, 「이유의 공지성과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 『철학연구』, 제117집, 대한철학회, 2011: 113-136.
- 성장원, 「좋은 것에 대한 책임-전가적 설명의 두 측면」, 『철학연구』, 제92집, 철학연구회, 2011: 117-141.
- Crisp, Roger. "Goodness and Reasons: Accentuating the Negative." *Mind* vol. 117, 2008: 257-265.
- Korsgaard, Christine. M. "Realism and Constructivism in Twentieth-Century Moral Philosophy." In *The Constitution of Agency: Essays on Practical Reason and Mor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02-326.
- _____. "The Relational Nature of Good." In Russ Shafer-Landau, ed.,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vol 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26.
- Nagel, Thomas. *The Possibility of Altru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The View From Nowhe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War and Massacre." In *Mortal Ques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53-74.
- Olson, Jonas. "Buck-Passing and the Wrong Kind of Reason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4, 2004: 295-300.
- Rabinowicz, Wlodek, and Toni Rønnow-Rasmussen. "The Strike of the Demon: On Fitting Pro-Attitudes and Value." *Ethics* vol. 114,

- 2004: 391-423.
- Regan, Donald H. "How to be a Moorean." *Ethics* vol. 113, 2003: 651-677.
- _____. "Why am I My Brother's Keeper?" In Philip Pettit, Samuel Scheffler, Michael Smith, and R. Jay Wallace, eds., *Reason and Value: Themes from the Moral Philosophy of Joseph Ra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02-230.
- Scanlon, T. M.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_____.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Sung, Changwon. "Morality and Other Values: A Contractualist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0.
- Wallace, R. Jay. "Scanlon's Contractualism." *Ethics* vol. 112, 2002: 429-470.
- _____. "The Publicity of Reasons." *Philosophical Perspectives* 23, *Ethics*, 2009: 471-497.
- _____. "Reasons, Values and Agent-Relativity." *Dialectica* vol. 64, 2010: 503-528.

The Agent-Relativity of Good

- The Buck-Passing Account of Good -

Sung, Changwon (Korea Univ.)

According to the Buck-Passing Account of good (the BPA) based on reasons fundamentalism, to say that something is good is to say that there is reason to respond to it in certain ways. Since the buck-passers reduce truths about values to truths about reasons for actions and attitudes, the underlying idea of the BPA is the priority of the normative over the evaluative. Wallace develops the BPA by introducing what he calls the deliberative model of values, according to which an object can have the property of being good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agent who has reason to respond to it in certain ways. In this way, the deliberative model is different from the non-deliberative model that does not require the agential response in question. Given that the proponents of the deliberative model may only endorse agent-relative good, they are distinguished from the Mooreans who accept the ontological priority of agent-neutral good over agent-relative good. I explain this major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by discussing Regan's recent attempts to justify the "Moorean" good. Although the deliberative model is a promising attempt to understand the idea of good in an agent-relative way, it may be objected on the following two grounds. First, Wallace defends the advantage of the deliberative model by pointing out that we can have a better epistemological access to lower-properties of objects than to their higher-order properties. But I argue that this is not always true. Second,

the deliberative model does not provide any standard by which we can distinguish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normative judgments. For that matter, the deliberative model fails to accommodate our intuition that only the kind of positive normative judgments can warrant the property of being good. This also makes the model in question vulnerable to the Wrong Kind of Reasons Objection to the BPA.

Key words: Good, Agent-Relativity of Good, Deliberative Model, Non-deliberative Model, Buck-Passing Account of Good, Normative Judgments

성창원 E-mail: csung@korea.ac.kr

투 고 일	2016년 04월 16일
심 사 일	2016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6년 05월 16일